



나모도 돌도~ | 작자미상

식어마님 며느라기~ | 작자미상

(가)

나모도 돌도 바히 업슨 피헤 매게 조친 가토리 안과

대천(大川) 바다 한 가운데 일천 석(一千石) 시른
빅에 노도 일코 닛도 일코 농총¹⁾도 근코 뚝대도 것코
치도 싸지고 브름 부러 물결 치고 안기 뒤섯거 즈즌
날에 갈 길은 천리(千里) 만리(萬里) 남고 사면(四面)
이 거머어득 저못 천지(天地) 적막(寂寞) 가치노을 췌
논디²⁾ 수적(水賊) 만난 도사공(都沙工)³⁾의 안과

엇그제 님 여훤 내 안이야 엇다가 ㄴ을 흐리오⁴⁾

- 작자 미상, <나모도 돌도~>

▶ [초장] 매에게 쫓기는 가토리의 절망적 상황 [중장] 도사공의
절망적 상황 [종장] 임을 여원 '나'의 절망

[현대어 풀이]

나무도 바윗돌도 없는 산에서 매에게 쫓긴 까투리의 마음과, / 넓은
바다 한가운데서 일천 석을 실은 배가 노도 잃고, 닛도 잃고, 뚝대에
맨 줄도 끊어지고, 뚝대도 꺾어지고, 키도 빠지고, 바람 불어 물결 치
고, 안개는 뒤섞여 자욱한 날에, 갈 길은 천 리 만 리 남았는데, 사방
은 검고 어둑하게 저물어 천지는 고요하고 사나운 파도가 치는데 해적
을 만난 도사공의 마음과, / 엇그제 임과 이별한 나의 아들이야 어디
다가 비교할 수 있으리오.

[어휘 풀이] 1) 농총 - 뚝대에 맨 굵은 줄. 2) 가치노을 췌논디 - 사나운
물결이 일어나는데. 3) 도사공 - 뱃사공의 우두머리. 4) ㄴ을 흐리오. -
견주리오. 비교하겠는가.

(나)

식어마님 며느라기 닛바¹⁾ 벽 바흘 구로지 마오²⁾

빗에 바든 며느린가 갑세 쳐 온 며느린가 밤나모 서
근 들걸³⁾ 휘초리 나니긋치 알살피신⁴⁾ 식아바님 빗 뵈
췌동긋치⁵⁾ 뵈종고신⁶⁾ 식어마님 삼 년(三年) 겨론 망태
에 새 송곳 부리긋치 췌족흐신 식누으님 당피⁷⁾ 가론
밧티 돌피⁸⁾ 나니긋치 식노란 외곳⁹⁾ ㄴ튼 피췌 누는 아
들 하나 두고

건 밧티 밧긋¹⁰⁾ ㄴ튼 며느리를 어디를 닛바 흐시논고

- 작자 미상, <식어마님 며느라기~>

▶ [초장] 며느리에 대한 시어머니의 미움 [중장] 시집살이를
괴롭게 하는 시댁 가족들 [종장] 괴로운 시집살이에 대한 원망

[현대어 풀이]

시어머님 며느리 싫다고 부엌 바닥을 구르지 마요. / 빗어 받은 며느
리인가 물근 값 대신에 데려온 며느리인가. 밤나무 썩은 등걸에 회초
리 난 것 같이 매서우신 시어머님, 햇볕에 쨌 쇠뿔같이 말라빠진 시어
머님, 삼 년 걸쳐 쨌 망태에 새 송곳부리같이 췌족하신 시누이님, 당
피(좋은 곡식) 갈아놓은 밭에 돌피 난 것 같이 췌노란 오이꽃 같은 피
뿔 누는 아들 하나 두고 / 기름진 밭에 메꽃 같은 며느리를 어디를 밟
다고 하시논고?

[어휘 풀이] 1) 닛바 - 미워. 2) 벽 바흘 구로지 마요 - 부엌 바닥을 구르
지 마요. 3) 들걸 - '등걸'의 옛말. 4) 알살피신 - 매서운. 5) 빗 뵈
췌동긋치 - 별 뵈 쇠뿔같이. 6) 뵈종고신 - 말라빠진. 7) 당피 - 좋은 곡식. 8)
돌피 - 품질이 낮은 곡식. 9) 식노란 외곳 - 췌노란 오이꽃. 10) 밧긋 -
메꽃.



핵심점점

<나모도 돌도~>

시구풀이

• 나모도 돌도 바히 업슨 피헤 매게 조친 가토리 안과

- 숨을 곳이 전혀 없는 까투리의 상황 제시
- 나무나 바위라도 있으면 숨기라도 하련만 그런 것조차
전혀 없는 산에서 매에게 쫓기는 까투리의 절박한 마음
을 표현함으로써, 임을 잃은 자신의 마음이 그렇게 절박
하고 절망적임을 나타냈다.

• 대천(大川) 바다 한 가운데 ~ 수적(水賊) 만난 도사공 (都沙工)³⁾의 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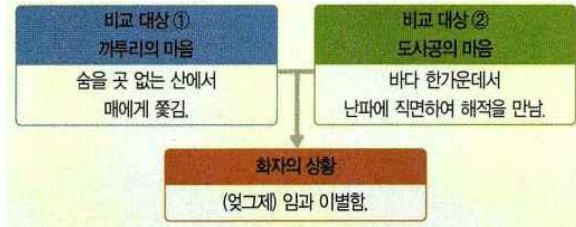
- 바다 한가운데서 무거운 짐을 싣고 파선 직전의 상황인
데 앞은 보이지 않고, 날도 저물고, 거친 파도와 해적을
맞닥뜨린 도사공의 절박한 심정이 드러나 있다.
- 설상가상, 사면초가의 상황으로 도사공이 경험할 수 있
는 모든 부정적 상황을 열거하고 있다. 점층법과 과장법
이 두드러지는 이러한 극한 상황의 제시는 화자의 슬픔
을 부각하고 있다.

• 엇그제 님 여훤 내 안이야 엇다가 ㄴ을 흐리오⁴⁾

- 임과 사별한 화자의 슬픔이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음을
설의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특징

- 갈래: 사설시조
- 성격: 수심가, 이별가
- 열거법, 비교법, 과장법, 점층법 등 다양한 표현법을 사
용하여 화자의 심정을 강조함
- 자신의 절박한 마음을 까투리, 뱃사공과 비교하여 드러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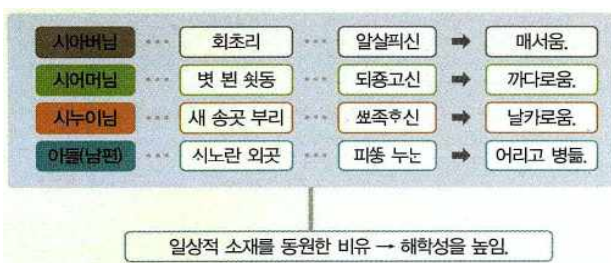
<시어마님 며느라기~>

❑ 시구 풀이

- 식어마님 며느라기 닳바¹⁾ 벽 바흘 구로지 마오²⁾
 - 며느리 입장에서 시어머님에게 고된 시집살이를 시키지 말아 달라고 당부하는 말이다. 여기에서 부엌 바닥을 구르지 말아 달라는 것은 너무 심하게 구박하지 말아달라는 의미이다.
- 밤나모 서근 들결³⁾ 휘초리 나니긋치 알살픽신⁴⁾ 식아바님 벋 뵤 췌동긋치⁵⁾ 되종고신⁶⁾ 식어마님 삼 년(三年) 겨론 망태에 새 송곳 부리긋치 췌족후신⁷⁾ 식누으님 당피⁸⁾ 가론 밧떡 돌피⁹⁾ 나니긋치 식노란 외곳⁹⁾ 굶른 피췌 누는 아들 하나 두고
 - 며느리를 구박하는 시댁 식구들을 생활의 소재로 비유하고 있다. 시댁 식구들의 성격이 '매서우신, 말라빠진, 췌족후신' 것으로 보아 화자의 시집살이가 매우 힘들고 고통스러웠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화자에게 버팀목이 되어 줘야 할 남편마저 허약하기에 화자의 시집살이는 더욱 고통스러운 것이다.
- 건 밧떡 밧곳¹⁰⁾ 굶른 며느리를 어딴을 닳바 흥시논고
 - '건 밧떡 밧곳 굶른 며느리'는 '식노란 외곳 굶른 피췌 누는 아들'과 대비되는 표현이다. 부족함이 없는 며느리를 아무 이유도 없이 구박하는 시댁 식구들에 대한 원망과 탄식이 담겨 있다.

❑ 특징

- 갈래: 사설시조
- 성격: 해학적, 풍자적, 원망적
- 일상생활과 밀접한 소재에 시집 식구들의 성품과 모습을 비유, 나열하여 해학적으로 묘사함.



✓ 사설시조와 가사의 구조적 차이

- 사설시조는 초장·중장이 제한 없이 길며, 중장도 길어진 시조를 말한다. 그러다 보니 시조 특유의 3·4조 또는 4·4조의 4음보가 많이 깨지기도 한다. 그러나 각 장의 길이가 아무리 많이 길어졌다고 하더라도 사설시조는 가사와 달리 3장으로 끝맺는 형식적 구조를 지니고 있다.

✓ 사설시조의 감정표현 방식: 감정의 현실감 > 형식의 아름다움

- 조선 후기 사설시조는 사대백들의 정서면 평시조와 달리 형식적 파격을 통해 절박한 심정을 표현하였다. 이는 형식의 아름다움보다는 하고 싶은 말의 내용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 작자 미상, <나로도 돌도~>

- 주제: 사랑하는 임을 여의 절망감
- 해제: 이 작품의 화자는 임을 여의 슬픔과 절망감에 잠겨 있다.
하지만 이러한 슬픔과 절망감을 과장과 비교를 통해 해학적으로 그려 냈다는 점에서 이 작품은 사실시조의 특징을 잘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초장의 가토리가 처한 상황과 중장의 도사공이 놓인 처지는 상식적으로 보았을 때 불가 능한 상황이다. 따라서 두 상황은 모두 과장을 통해 초고의 절망감을 나타내기 위한 의도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화자는 자신이 임을 여의 것은 가토리나 도사공의 상황과는 비교도 할 수 없다고 함으로써 자신의 슬픔과 절망감을 강조하고 있다.
- 구성
[초장] 나에게 쫓기는 가토리의 절망적 상황
[중장] 도사공의 절망적 상황
[종장] 임을 여의 '나'의 절망

※ 작자 미상, <의어마넨 댄느라기~>

- 주제: 시집살이의 고통과 리로움
- 해제: 이 작품은 시집살이의 리로움을 풍자적으로 그리고 있다. 초장에서는 시어머니의 행동을 구체적이면서 사실적으로 묘사하여 댄느리를 미워하는 시어머니를 보여 주고 있다. 중장에서는 시아버지를 회초리에 비유했는데, 이것은 회초리같이 매서운 시아버지의 질책으로 볼 수 있으며, 시어머니를 쇠뿔에 비유하여 인정 없이 매마른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시누이는 송곳 부리에 비유하여 화자의 시집살이를 아프게 하는 인물로, 남포원은 누렇게 더서서 병약한 모습으로 그리고 있다. 이러한 비유들은 시집살이의 리로움을 표현하는 동시에 이들을 희화화하여 풍자하는 효과도 얻고 있다. 종장에서는 댄느리 자신을 메꽃에 비유하고 있는데, 이것은 중장의 시복모 가족들에 대한 표현들과 대비되면서 자신은 미워할 곳이 없는 사랑임을 은근히 나타내는 것이다. 또한 의문형으로 시상을 마무리하여 원망의 심정을 강조하고 있다
- 구성
[초장] 댄느리에 대한 시어머니의 미움
[중장] 시집살이를 리롭게 하는 시댁 가족들
[종장] 리로운 시집살이에 대한 원망